



## 빠른 세월, 빠른 변화

세월의 흐름을 이야기 할 때 20대의 나이는 걸어가 는 듯 나이를 먹지만 50대 이후는 날아가는 듯 빨리 나 이를 먹는 듯하다는 비유를 듣게 된다.

이는 나이 든 분들의 시간 흐름이 젊은이 보다는 더 옥 빠르게 느껴진다는 감각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요즘에는 정말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와 닿는 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세계 각 국의 정보와 상황이 초단위로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이와함께 편리한 만큼이나 피곤 한 생활도 우리를 압박하고 있 다.

개인의 각종 정보나 심지어 사생활까지 데이터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는 이미 별거벗 은 상태로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닌 듯 싶다.

기업경영도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흡사 바닷물처럼 밀려오는 정보의 물결에 도움받기 보다는 자칫하면 휩쓸려 갈지도 모르는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변화에 대비하려고 해도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경영환경이 럭비공처럼 어 디로 튈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향후 10년의 변화가 지난 수세기 동안의 변화, 발전 의 발자취 보다 그 폭이 넓을 것이라는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고 보면 특히 기업인들은 미래예측을 가 능한 정확하게 해야하는 고민도 함께 안고 있는 실정이

기도 하다.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과 활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 지만 한사람 한사람이 좋은 정보를 이용하고 삶의 질을 살찌우는 대열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정지된 시간속으 로 떨어지는 위험부담도 도사리고 있다.

오늘을 사는 인쇄인 대부분은 쉽표없이 달리는 인생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 다.

성서에도 인생이 건강하면 70 이고 장수하면 80이라고 했듯 이 아무리 건강해도 인생길은 곧 끝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포기 하면서 인쇄사 경영에 매달리다 보면 몸과 마음이 혹사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삶의 좌표도 제 대로 찾지 못한 채 밀려가는 경 우가 적지않다.

신년초에 인사를 나눈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세모가 내 다보이는 시점에 서 있다.

개인적으로나 기업경영에 많 은 변화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번 연말에는 인쇄인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몸과 마음 이 쉬어가는 안식기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범 한 가운데에 비범함을 찾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여유를 지니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오세익·편집주간〉